

보 도 설 명 자 료

('12. 2. 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연합뉴스, 매일경제 “국의 자원개발 30대 재벌 78社-흑자 28%에 불과” 보도에 대한 설명

1. 기사요지 ('12.2.2, 연합뉴스, 매일경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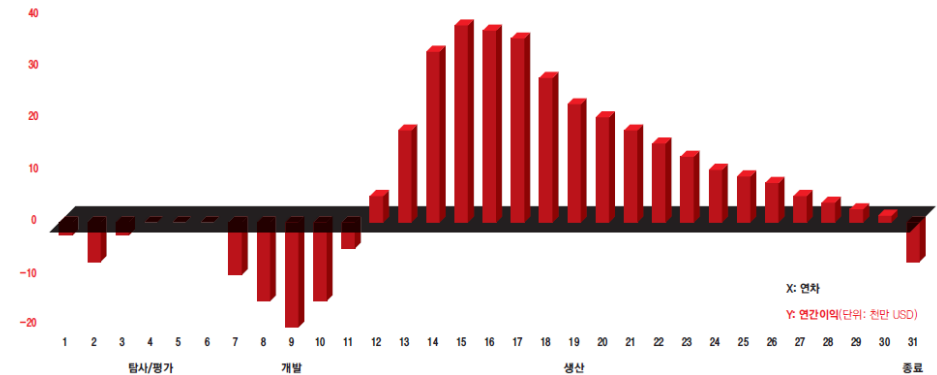
- 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증가한 것은 자원외교 강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독려에 기인
- ②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대기업 자회사 78개社 중 2010년에 흑자를 낸 곳은 22개社(28.2%)에 불과해 대체로 참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민간 기업이 최근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원 확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, 지속적인 자원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임
 - 이는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, 석유·가스 개발 분야의 경우 전체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
 - * 세계 E&P 투자 규모 추이(IHS Global Performance Upstream Review 2011)
: ('07) 4,071억 달러 → ('10) 5,578억 달러
- 민간기업의 해외 자회사 중 흑자 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은 자원 개발 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임
 -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탐사(2~5년), 개발(2~5년) 단계를 거쳐야 수익이 발생하는 생산단계(10~30년)로 진입할 수 있음

- 따라서 최근 5~10년 내 추진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익에 비해 투자비용이 높아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, 향후 생산 단계 진입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

< 석유개발 사업의 단계별 이익 흐름(A광구 사례) >



- 그간 우리 민간 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노력으로 여러 성과를 내고 있음
 - SK이노베이션은 지난 '11.7월, 탐사에서 성공한 브라질 광구를 24억불에 매각하는 등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석유개발사업에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김
 -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서부 해상 가스전 탐사/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대형 가스전 발견에 성공한 바 있음
 - 발견한 가스 가채매장량이 4.5Tcf(7.7억배럴)로 국내업체가 발견한 해외 유/가스전 중 최대 규모
 - 또한 LG 상사는 러시아, 호주 등에서 석탄 사업 투자를 통해 약 4억6천만불 회수
 - STX는 캐나다, 미국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음
- ☞ 자료문의 :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정권 사무관(02-2110-5440)